



# “항생제 전면금지 정책은 장애 아닌 기회”

올텍 CEO 피어스 라이언스, 제19회 아시아-태평양 순회강연에서 언급

>>> [ 정리 \_ 이미지 ]

**세** 계적인 사료첨가제 생산업체인 올텍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유럽의 사료첨가용 항생제 사용 전면 금지정책에 대해 '장애가 아닌 기회'라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예고하고 있어, 항생제를 대체할 사료첨가제 시장의 열기가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1월 10일 르네상스호텔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린 올텍의 제19회 아시아-태평양 순회강연에서 피어스 라이언스 박사 (올텍의 사장)는 「축산의 변화와 보존, 그리고 발전의 시기」라는 주제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창조하는 것”이라며, 현재 올텍은 미래의 산업을 위해 “클리코믹스, SELDI, 자동 DNA 배열, 유전자칩, 뉴트로제노믹스등의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며, 우리 분야에 접목시키고 있다”고 공언했다. 특히 피어스 라이언스 박사는 2006년부터 성장촉진용 항생제 사용이 금지되는 것과 관련 올텍에게는 그러한 정책이 “장애가 아닌 기회”라고 역설했다. 약 80여명이 참석한 이번 강연회에는 피어스 라이언스 올텍 사장을 비롯하여 로난 파워 박사 (북아메리카 생명공학센터

연구소장), 알라스터 존스톤 수의사 (영국, 수의학청 수의사), 피터 스프링 박사 (스위스 농업대학) 등이 강사로 나와 ‘동물의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 강연했다. 특히 이번 강연은 유럽의 항생제 금지 시책에 맞춘 실질적인 대안방향을 공유할 수 있었던 시간으로 평가되고 있다.



▲ 올텍CEO 피어스 라이언스 박사

「소화기관의 천연 면역 기능에 대

한 영양학적 접근」에 대해 강연을 맡은 로난 파워 박사(북아메리카 생명공학센터 연구소장)는 효소제의 효과를 설명했다. 로난 파워 박사에게 따르면, 소화관의 첫 번째 역할은 섭취한 사료에서 영양소를 추출한 후, 그 영양소를 혈류내로 흡수하는 것이므로 소화관은 병원균의 침입에서 사료 내 독소까지 다양한 외부 위험요소에 노출되



▲ 올텍 코리아 이상훈 대표(왼쪽)과 올텍 CEO 피어스 라이언스 박사

어 있다. 장내 미생물총에 의해 생산된 헤로운 대사산물에도 노출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축산업자들은 그동안 성장 촉진용 항생제를 사용하여 자연적인 면역력을 보조하여왔다. 하지만 이는 항생제 내성이라는 잠재적 위험성을 안고 있으므로, 성장촉진용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로난 파워 박사는 그 대안의 하나로 효과가 검증된 효소제의 역할을 설명했다. 로난 파워 박사는 효소제의 급여는 일차적으로 숙주의 영양소 이용률과 사료 소화율을 증가시키며, 부차적으로 장내 미생물 균총을 유익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폐사율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효소제에 관해 발표된 다양한 결과를 고찰한 결과, Rosen(2001)은 증체량이나 사료 효율에 효소제가 항생제만큼 효과적이라고 결론지었다) 그 사용을 권할 만하다고 했다.

이어 알라스터 존스톤 수의사(영국, 수의학청 수의사)는 「농장에서의 장 건강 관리」라는 주제 발표에서 “현재 많은 국가에서 장내 미생물 균총을 향상시키고,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경쟁적 배제, 생균제, 면역자극 등의 대체 방법을 연구중에 있다”며 “이들 중 만난올리고당(MOS)은 영국의 양계, 양돈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가축에게 가지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피터 스프링 박사(스위스 농업대학)는 「장의 면역력 향상」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장 건강은 동물의 성장능력을 극대화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말하고, 특히 “어린 가축의 장 건강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분만 오래전부터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올텍의 장 면역강화 제품의 기능에 대해 설명했다. ㉓